

“우리는 평화에 도움이 되고 서로를 위해 건설하는 일을 추구합니다.”

총원장 나현오 현오레지나 수녀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의로움과 평화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사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야 하느님께도 마음에 들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에 도움이 되고 서로를 위해 건설하는 일을 추구합니다.”
(200주년기념성서 : 로마 14,17-19)

먼저 <영원한 도움>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 하느님의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복음의 기쁨으로 평화를 이루는 선교사들과 이들을 후원하는 분들에게 하느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2023년에 해외 선교 지역을 방문하면서 나라마다 지역적·정치적·사회문화적·종교적 환경이 다르고, 파견된 수녀님들이 선교 과정에서 겪는 체험들이 매우 다양함을 보았습니다. 모든 수녀님과 협력자들이 일치하는 것은 하느님의 의로움과 평화를 추구하는 한마음이었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한뜻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선교지에서 펼쳐지는 도움의 손길은 후원하는 분들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도움의 손길을 계속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하느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며,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으로 평화를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강력한 하느님의 의로움과 평화를 구하며 도움의 대열에 동참해야 합니다.

굳건한 신앙으로 이미 아름다운 나눔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선교사와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눔의 잔치에 이웃을 초대하여 하느님 사랑을 더욱 키워가는 분들에게 존경을 드립니다. 모든 이가 봉사하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파견된 곳에서 충실히 봉사하며 기쁨을 간직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성령이시여! 세상을 평화의 길로 인도해주소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어려운 모든 이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Vol. 21

STORIES OF THE MISSION

- 02 + 선교 이야기 #01_페루
- 04 페루의 새 복음화는 어떤 방향으로 ...?
정윤희 블리나 수녀
- 06 “Haya luz!” “빛이 생겨라.” (창세 1,3)
박은경 은경아녜스 수녀
- 08 좋기도 좋을시고 ... 서정민 마리아브라함 수녀
- 10 선교 여정을 마치고 최종숙 아우구스타 수녀

- 16 + 선교 이야기 #02_필리핀
- 18 성모님의 전구로... 김영선 가브리엘라 수녀

- 22 + 선교 이야기 #03_카자흐스탄
- 24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송영근 요나 수녀

- 28 + 선교 이야기 #04_베트남
- 30 ‘더위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오토바이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다니 3,67 참조)
김미라 마리엔 수녀

STORIES OF OUR EXPERIENCES

- 35 + 페루의 형제님 나 살로메
- 36 + 2023 Peru Mission Essay-간토 그란데 최 안드레아
- 38 + Cangari, 그 환함의 기억 신 세바스티안
- 40 + 페루 선교 이야기 나 베네딕도
- 42 + 페루 단기 선교를 마치고 임 헬레나
- 44 + 2023 페루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하느님의 계획)
김 로마노
- 46 + 나의 타볼산 나 스클라스티카
- 48 + 한국 외국어대학교 대학원생의 한국어 사랑
알로나 티니코바, 번역: 한성숙 살레시아 수녀
- 50 +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를 다녀와서
하빠크 크노루악 알렉산드라, 번역: 조 휘 가브리엘

- 54 + 후원자 · 후원 안내



표지 : 페루, 창세기 4차 연수(2023년 8월 6일)

- 발행처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02706 서울시 성북구 숭례로15라길 2-18
- 발행인 | 나현오 현오레지나 수녀
- 선교부 | 김동선 임마쿨라따 수녀
- 편집실 | 조금희 금회데레사 수녀
- 발행일 | 2023. 12. 01.
- E-mail | solph70@hanmail.net · Tel | 02.2171.1611
- 인 쇄 | 재영아트 (02-2276.0640)



‘영원한 도움’ 선교 잡지는 국내 친환경인증 용지에 공기를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합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에서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며 작은 실천을 합니다. 표지-양코르 160/m² | 내지-그린라이트 80/m²



간거리 뿌체로 축제

선교 이야기 #01_페루

STORIES OF THE MISSION

PERU

우리 모두는 선교를 향한 새로운 '출발'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안위를 떠나 용기를 갖고 복음의 빛이 필요한 모든 '변방'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따르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 20항)

선교사로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곳의 '변방'은 어디일까? 눈만 뜨면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도록 매일 새로운 '출발'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나의 삶 전체를 통해 선교사로서의 몫을 다하도록 매일 채찍질 받고 있습니다.

페루의 새 복음화는 어떤 방향으로...?

정윤희 뿔리나 수녀



간가리 청소년들과 함께



새로지은 닭장에 나란히 있는 구구, 치치, 까를로스



첫영성체어린이들과 함께

간가리 수녀원에는 페루 선교 9년 차요, 5년째 이곳에서 활동하는 신영애 스페란자 수녀와 작년 10월에 재입회한 나, 두 사람이 살고 있다. 그 외 토종 암탉 두 마리와 수탉 한 마리가 한 식구다. 흰색 '구구'는 먼저 입양된 늙은 닭이고, 흑갈색 토종 '치치'는 이제 중병아리를 벗어나 알을 낳는 젊은 닭이다. 갓 입양한 수탉은 얼마나 되었는지 잘 모른다. 1년 가까이 주인의 사랑을 독식하며 지낸 구구가 먹이 앞에서 텃세를 부려도 늘 셋이 붙어 다닌다. 정원이 넓어 풀어두는데, 이따금 정원 정비 작업으로 두 암탉이 알둥지를 잃기도 하고, 이웃집 고양이 들락거려 병아리 보금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닭장을 짓기로 했다. 치치가 산란기 때 우연히 집에 들어온 이웃집 수탉과 알을 낳기 시작하고 한 달을 넘게 그 알을 품었다. 수탉의 부재로 무정란을 품고 있었다. 구구와 치치를 보며 나는 페루 선교에 대해 성찰을 해보았다.

구구는 스스로 먹이를 찾기보다 주인에게 의존하는 편이다. 치치는 모이를 주려고 부를 때만 나타난다. 초연한 자존감을 보인다. 구구가 원조 선교에 걸든 페루의 오지와 도시의 가난한 가톨릭 공소 신자들이라면, 치치는 경계선이 없는 자기 영역에서 자유롭게 먹이를 찾아다니는 원주민이다. 놀라운 문화를 가지고도 미개인 취급을 받으며 정복자의 강압으로 가톨릭 국가가 된 페루의 아픈 현실이다. 서구 교회의 성소 감소로 그들의 원조로 지어진 오지의 성당 대부분은 인적 드문 공소가 되었다. 성직자가 턱없이 부족해 일년에 장례와 마을 수호자 축제 때만 미사가 있다. 얼마 전 인근 공소에서 돈이 될 만한 성상 장식품들을 도둑맞았다. 간가리 공소는 값나가는 물건도 없을뿐더러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가 있어 주일 미사와 매주 화요일 묵주기도를 드린다. 주일 미사 참례자는 20~50명이다. 주민

대부분은 주일 미사 참례가 의무라는 인식이 없고, 친인척의 장례나 기일 미사에만 참석한다. 마을 수호자 축제 때면 성당 마당이 춤과 먹거리 판매로 북적여도, 정작 성전에서 봉헌되는 미사에는 관심이 없다. 페루의 산간 오지 마을과 도시 빈민 지역은 이러한 가톨릭 신앙 관습에 식상해서 개신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주일 신앙에 걸든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페루인들의 신앙을 섬볼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비만 조금 으면 푸른 색이 돋는 민둥산처럼 하느님이 뿌리신 신앙의 씨앗이 이들의 삶 속에 묻혀 있다.

두 번째로 간가리에 온 나는 페루 선교 6년 차인데 늦깎이에 그나마 11년, 3년의 터울로 들락거려 언어는 제자리걸음이고, 내년이면 70대에 돌입한다. 감사하게도 아직은 일상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 나이에서 오는 한계

를 직면하고 포기할까 생각했을 때, 하느님은 알을 품고 있던 치치를 통해 내가 어떻게 선교해야 할지 일깨워주셨다. 암탉은 병아리가 부화할 때까지 동지를 비우지 않는다. 페루의 새 복음화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알리고, 교리를 가르치되 이들 스스로가 관습의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묵묵히 품고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인도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고 하였고, 우리가 걸든 신앙 관습의 알을 깨고 새로운 복음화의 선교사가 될 때까지 품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는개!

PERU-CANTO GRANDE

“Haya luz!”, “빛이 생겨라.”(창세 1,3)

박은경 은경아녜스 수녀

2022년 10월 4일 밤 공소 종탑 십자가에 불을 밝힌 일은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마리아 공소 신자들에게 너무나 큰 감동의 선물이었다. 새로 등장한 공소 신자 한 분이 아이 디어를 내어 청년들과 함께 3주간 동안 정성 들여 십자가를 만들었다. 형제 4명이 무거운 십자가를 종탑까지 올리고 우리 모두 공소 건너편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3! 2! 1! 0! ... 찰나의 정적이 흐른 후 기적 같이 십자가에서 빛이 흘러나와 어둠을 밝혔고, 모두가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행복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다.

밤의 어둠을 밝히는 일도 감동이지만 마음의 어둠에 빛을 밝히는 일은 더욱 소중한 미션임을 체험하게 되었다. 후안 빠블로 세군도¹⁾라 부르는 현재 선교지에 머문 지 삼 년째다. 이제야 공소 공동체의 대소사에 대해 조금 알게 되고 누군가를 조금 더 깊이 알게 된다. 그것은 사랑의 빛이 비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지난 6월 초 평신도 단기 선교팀 방문 중 ‘현지인들과의 만남’ 프로그램으로 할머니와 J 어린이가 사는 산동네 집을 저녁에 안내하게 되었다. 이 가정은 전기 없이 사는데 집 앞 가로등 불빛과 낮은 책상에 촛

불을 켜고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11살이 된 J에게도 너무나 불편하면서도 익숙한 것이 되었지만, 선교사들은 너무 당황해하고 안타까워하며 선교 체험 기간이 끝날 때 ‘주님, 이 집에 빛이 생기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랑의 마음을 여행비와 함께 몽땅 남겨두고 떠났다.

그들이 떠나고 스무날이 지난 뒤 할머니를 만나, 당신을 후원하는 이들이 생겼으니 전기를 끌어오는 일을 함께 시작하자고 하니, 그분의 얼굴에 기쁨과 감사의 빛이 환하게 터져 나왔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지역 Enel(전력 공사)에 가야 했다. 담당 직원은 6년 전 중단된 전기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새 전기계량기 설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주었다. 그 목록에는 현재 집의 소유권 공증 서류가 명시되어 있었다. 할머니의 이웃들 도움으로 SUNARP²⁾에서 소유권 서류를 복사할 수 있을 곳을 찾아갔고, 다른 서류들도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어 가는 동안 할머니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반복하여 듣고서야 가족 역사를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었다.

1) 성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의 1985년 페루방문 기념하며 같은 해 설립된 이 동네 이름을 후안 빠블로세군도(Juan Pablo II)로 지었고, 공원에는 요한 바오로 2세 성상이 세워져 있다.
2) Superintendencia Nacional de los Registros Públicos 국가 공공등록부 감독관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권리와 소유권을 등록하고 공개함으로써 시민에게 법적 보안을 제공한다.



공소 십자가에 불을 밝힌 첫 날

여러 차례 전력 공사를 방문하여 서류 확인 절차에서 막막으로 공동소유자인 할머니 아들(J의 친부)의 모든 법적 위임장을 만들고 사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만 남았다. 그러나 전화 연락도 안 되고 가끔 찾아오는 그를 어디에서 만나 사인을 받을 수 있을까? 할머니와 손주 J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언젠가 오길 바랄 뿐이었다. 아마도 이 집을 방문하고 돌아간 후원자들이 이 가정을 위해 기도의 촛불을 많이 켜주셨는지 두 주간이 흘러가자, 기적같이 아들이 다녀가고 사인도 해 놓아 서류는 통과되었다. 이제 전기 기술자가 직접 와서 실제 상황을 체크하고 그 내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일만 남았다. 1주일 외출하지 않고 기술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었다. 할머니가 지혜롭게 인내심을 갖고 잘 기다려 기술자 방문과 준비 사항들을 받았다. 목적을 향해 갈수록 우리 마음은 조금씩 더 밝아지고 있었다. 비록 후원비에서 경제적 자출이 많았다고 있었지만...

선교지 일정으로 계량기 공사가 또 지연되어, 8월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할머니와 계량기 설치 사전 공사자와 함께 전력 공사를 찾았고, 현재 집 상황과 공사 계획을 설명하여 전력 공사에서 처음 제시한 내용의 수정이 수락되었다. 먼저 전기계량기를 달 곳을 다시 설정하고 수도를 집안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머니도 받아들였다. 9월 첫 주간 전기, 수도, 대문 앞 바닥 공사는 공소 신자 두 분이 맡아 4일 만에

전기계량기 설치 사전 공사를 마쳤다. 산동네 공사라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 모두 이 집에 전기를 끌어오는 일에 열심히 하였고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며 수고하는 이들을 격려해주었다. 이제 한두 주 후면 전기계량기가 잘 안치되고 할머니와 J 어린이도 감격하며 전기가 들어오는 날을 맞을 것을 생각하니 감사의 마음 가득하다. (아마도 선교잡지를 읽을 때는 이미 전깃불이 따스하게 밝혀진 그들의 집이 보일 것이다) 할머니와 J 어린이집에 전깃불을 밝히는 일을 도우면서, 물리인 빛을 밝히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만, 사람 마음의 빛을 밝히는 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인내를 가지고 지속해서 해야 하는 미션임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주님! 저희 마음과 의지를 선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당신 빛으로 초대해 주시는 당신께 찬미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이 미션이 완성되도록 영적·물적으로 후원하고 함께한 후원자, 공사실무자, 그리고 인자롭게 우리를 도와준 전력 공사 직원 모두를 축복해주소서. 또한, 이 가정에 전기 빛과 함께 착한 이웃들의 사랑 빛이 끊이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당신께서는
암흑을 빛 속으로 끌어내시는 분!
(요 12, 22 참조)

PERU-CANTO GRANDE

즐기도 좋을시고 ...

서정민 마리아브라함 수녀



2023 Mission Trip@애틀랜타팀(단기선교) 페루 칸토 그란데 도착하여 첫 만남

‘오늘’이라는 삶을 그저 평범한 듯 ‘매일’ 달리 살아가는 우리 수녀들은 ‘어제’ 마치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또 고요히 공소를 지키며 이곳에서 살림을 산다. 그래서 이 고요함 속에 나는 어제(지난날들)의 날들을 글로 정리하려 한다.

예수님 마음이 그랬을까? 설렘과 기대로 누군가를 맞이한다는 것은 참 행복을 가져다주는 선물 같다. Zoom으로 단기 선교팀과 첫 만남을 하고 드디어 5월 끝자락에 만남이 성사되었다. 우리가 ‘페루’라는 나라에서 이방인인 동시에 선교사의 신분으로 만나는 그 순간은 ‘한마음 한뜻’ (사도 4, 32 참조)임이 분명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

2주간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나의 영에서 울리는 떨림의 소리가 신선하였다.

첫날 기도로 시작을 알렸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아주 어여뻐 바라보고 계실 것을 생각하며 절로 새어 나오는 미소를 머금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봉헌하였다. 기도로 하루 문을 열고 조금씩 노동하면서, 현지의 상황을 잘 모르는 우리는 한계를 극복하고 나를 내려놓는 연습의 시간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신자들은 우리를 얼마나 호의적으로 마음을 다해 대하는지,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은 그 순수함에 한순간에 녹아내릴

수밖에 없었다. 밤에 그 마음들을 성찰하며 내 마음이 세상에 너무 찌들어 하느님을 향한 순수함이 줄어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배우고 다시 하느님을 찾을 원동력을 얻었다.

수도자와 평신도(단기 선교팀)가 동고동락하며 지내는 생활에서 부족하고 불편한 것이 익숙한 이곳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이 더 밀집되어 지내야 했고, 수녀들에게는 가림막을 칠 만한 장소도 없었다. 한

국에서만 사도직을 했다면 절대 체험하지 못할 일이었다. 어디를 가든 세상과 분리되어 생활했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내가 얼마나 ‘우물 안 개구리’였는지 엿볼 수 있었다. 2000년 전 예수님도 이런 삶을 살았을 것을 상상하니 바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변방이었다. 예수님은 이보다 더 밀집된 상태에서 많은 이와 함께하신 것이다. 그래서일까? 우리의 성찬례와 식탁은 예수님 중심으로 늘 풍성하였고, 작은 것도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형제애가 싹텄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헤어질 때가 되었다. ‘작별’이라는 어려운 관문이 다가왔고, 마음속 아쉬움과 그리움은 홀로 견뎌내야 했다. 청년들은 단기 선교팀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미사가 끝난 평일 저녁 학교를 마치고 공소에 찾아왔고, 그들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공소 신자들도 부족한 언어로 언제 돌아가느냐며 묻고 또 물으며 작별을 아쉬워했다.



어린이들과 성경 말씀 작업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의 끈으로 묶인 형제자매가 되었다. 늘 그렇듯 만날 때는 좋지만 정해진 시간 앞에 작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하느님 마음으로 바라보면, ‘나도 하느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생각에 더없이 기쁘고, 감사하며 눈물 나도록 벅차오른다. 이 경험을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나눌 수 있고 희망으로 전할 수 있기에, 작별을 뒤로 하고 새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당당한 내가 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베퉴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은총 속에 묵묵히 기도하며, 페루와 이 세상 어딘가에 영적·물적으로 후원하고 있을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 ‘선교’가 무엇 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고 싶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배우고 얻어가는 하느님의 귀한 선물의 집’이라고...

DAILY LIFE IN

CANTO GRANDE



01_태권도 교실 02_과테말라 3차 창세기 연수 미사
03_페루 탈출기 개강미사와 입문 강의 후 끼를로스 보좌 신부님과 함께

04_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마리아 공소 건진교리교사들과 함께 05_송별식(애틀랜타 단기선교팀) 06_애틀랜타 단기선교팀 07_나 현오레지나 총원 장 수녀님과 선교총평의원 김 임마꼴라따 수녀님 환영식 08_레지오 성자순례 중 구속주회 방문 09_창조의 시간 10_신학원에서 문화의 날 문화축제

PERU-VILLA EL SALVADORE

선교 여정을 마치고

최종숙 아우구스타 수녀

이제 긴 여정을 마치고 떠나온 동지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 독일에서의 긴 세월, 이곳 페루에서의 선교사로써 보낸 23년간의 세월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느님은 이 시간을 통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가르치려 하셨던 걸까? 그리고 난 지금 행복한가? 이런 성찰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체험을 나눠보려고 한다.

가장 소중했던 체험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 체험이었다. 낯선 땅에 던져져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언어장벽이다. 죽 인대도 못 알아듣고 안개 속,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던 어느 날, 미사의 성변화 중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하시는 주님의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어떤 언어를 쓰든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 한 형제자매'며 '그분의 몸'이라는 사실이 마음 깊이 새겨졌다. 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성체 대회에 참석하고 계실 때 우리는 로마 베드로 성당을 방문해 미사를 봉헌하고 있었다. 교회는 교황님과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한국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날의 기도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아, 이것이 교회며 우린 그리스도 안에 한 식구이구나!' 선교 초기에 가졌던 이 체험들은 지금까지 선교사로 살

아오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 다른 체험은 '선교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인 것.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보잘것없고 가난한 이들이라도 하느님 나라를 향해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 배우고 일러주는 동료며 친구이다. 리마의 변두리에서, 안데스의 오지 간가리에서 이것을 체험했다. 2005년 미국 한국 순교자 성당의 단기 선교팀이 우리 선교지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이곳 사람들이 선교팀이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또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다. 그래서 마을 간부들과 여러 차례 회합하며 우리도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고 했다.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마을 사람은 열심히 또 기쁘게 함께 일하며 그들에게 감사했고 가진 것을 나누었다. 특히 마지막 밤 송별회 자리에서 이들은 테러 시대에 겪었던 아픈 역사를 어떻게 극복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남녀노소가 한 팀이 되어 연극을 하며 보여주었다. 이들의 깊은 역사적, 되새김, 후손들에게 그들 역사의 교훈을 생생히 이어가는 모습이 선교팀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단기 선교팀은 안데스의 오지 또는 리마의 변두리 지역에서도 가난한 이들이 웃으며 사는 모습을 보고, "왜 그런 환경에서 그들이 웃어요?" "우리가 역 선교를



쁘라데라스 공소 송별 미사

당한다." 하며 이 '하느님의 아나뵤들'의 매력에 끌려 20년째 이곳을 찾아온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선교사로서 내 삶의 의미도 그래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느님의 은총을 하나도 잊지 않는 일, 그분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일일 것이다. 그동안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손잡아 주던 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려 어설프게 애썼던 일,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찾아 나서기를 게을리했던 일, 그들의 아픔을 외면했던 일 등 모두를 어머니께 봉헌하며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동지로 돌아간다. 그동안 선교사들을 위해 물질적인 도움과 기도를 해주신 모든 은인, 후원자, 가족, 수도회의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돌아가서 나도 세상 곳곳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기쁨 안에서 늘 감사하며(1테살 5.16-18 참조). "주님, 저를 뽑으시어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이 모두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소서, 제가 밟고 온 땅마다, 만났던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축복과 현존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선교사, 또 세상의 모든 이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리스도의 참 가족이 되게 하소서."



쁘라데라스 공소 첫성체 어린이 묵주기도 가르침



산마르틴 공소 레지오 모임 후

DAILY LIFE IN



01_진료 접수 02_한 의사 로버트 한 선생님, 아우구스타 수녀 03_본당 진료소 엑스레이기 축복식 준비 04_한 의사 로버트 한 선생님 진료 중
05_공부방에서 소녀와 볼록 놀이를 하는 글라리아 수녀 06_Señor del Huanca 순례 07_성모 자매회 월봉헌일 후

VILLA EL SALVADOR



08_총원장 수녀님과 선교총평의원 수녀님 방문 09_예수 성심 공소 청소년 레지오 10_손경수 신부님 공부방 방문 11_노인팀 소풍(88세 빠
올라할머니) 12_크리스도 살바도르 본당 송별미사 후 레지오 단원과 함께 13_공부방 어린이들과 함께 14_본당 사목팀



쌀을 받을 수 있는 티켓을 배부하는 정유닛 수녀

선교 이야기 #02_필리핀

STORIES OF THE MISSION

PHILIPPINES

우리의 중재자이신 동정 성모 마리아여,
복음 선교를 위해 나아가는 길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지켜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PHILIPPINES-NAVOTAS

성모님의 전구로...

김영선 가브리엘라 수녀

“주님은 가련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아니 잊으신다.”
(시편 9,13)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구속주회 필리핀 진출 75주년 기념 세미나에 함께하였다. 필리핀 구속주회(빠클라란 성당)에서는 우리 수도원이 자신들의 가족 수도회라고 무슨 행사 때마다 우리를 초청해 오곤 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학생인 이 다윗 수녀와 황 마르타 수녀도 동행하였다. 23일 아침 7시부터 25일 저녁 5시까지 매일 같은 시간에 200여 명이 한 강당에서 모여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필리핀 전 지역 구속주회 관련 신자와 사제, 수도자, 신학생들이었다. 구속주회 총장 신부님과 관구장 신부님들도 함께하였다.

세미나는 필리핀에 진출한 구속주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해 보는 시간이었다. 이 과정에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9일 기도 신심이 필리핀 신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적극 조명하였다. 이에 따른 활동으로 신자들이 직접 쓴 ‘성모

님 신심이 삶에 미친 영향과 변화’에 대한 편지 일부를 영상과 더불어 소개하였다. 구속주회에서는 성당에 편지함을 마련하여, 신자들이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9일 기도를 통해 얻은 체험을 기록한 서신을 그곳에 넣으면 매주 그 편지들을 확인하여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하고 1년 동안 모은 서신들은 물에 녹여 퇴비로 쓴다는 것이다. 이 세미나는 편지들을 소개할 뿐 아니라 여러 체험자를 현장 강단에 모시고 체험담들을 나눈 후 질문과 토론을 이어갔다. 또한, 주일에 이곳 빠클라란 성당 미사에 참례한 신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이 왜 이 성당에서 미사를 참례하는지 인터뷰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들은 성모님은 우리 어머니시고 영원히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공경하며,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함께 이 미사에 데리고 온다고 했다.

나는 참으로 신심이 부족한 수녀이지만 그나마 성모님 신심만은 웬만하다고 생각하였다. 수녀원 오기 전부터 열심히 집에서 촛불을 켜고 묵주기도를 바쳤을 뿐만 아니라 친



영원한도움의 성모님께 기도를 청하는 사람들

구와 같이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며 레지오 활동과 기타 활동을 하다가 수녀원에 입회하였다. 수녀원에 와서도 공교롭게도 서울교구 학생 레지오 담당 수녀로서 활동하며 중고등학생들의 레지오 활동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나의 신심은 여전히 밑바닥 같았다. 그런데 뜻밖에 필리핀으로 소임을 받고 와서 보니 이곳은 나라 전체가 온통 신심이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보나 주님과 성모님에 대한 신심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신자들의 행동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놀라움 그 자체였다. 신자들은 적극적으로 신심을 드러내놓고 행동하였다. 그들은 성상들을 쓰다듬고 기도하고 매달렸다. 나는 처음에는 아주 어색했지만 이제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 같다. 나의 필리핀 소임은 아마도 주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신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현장 체험을 보낸 것이라 여겨진다.

얼마 전 지붕으로 비가 새어 들어와 거실 천정이 그 비를 이겨내지 못하고 많은 빗물과 함께 큰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다. 필리핀 우리 수녀원 지붕의 구조는 철근으로 지붕 모양을 잡고 얇은 은박 비닐을 덮은 후 그 위에 양철지붕을 얹은 형태여서 천정이 뚫리자 바로 지붕 양철과 마주하게 되었다. 정말 한심하고 두려웠다. 폭우는 계속되고 밤은 다가와서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제발 이 밤만은 폭우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도 미덥지 않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매일 밤 내리던 폭우가 그 날은 오질 않았고 날은 밝아왔다. 정말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날 성당으로 가서 감사 미사를 올렸다. 주님은 정녕 성모님의 전구로 어려움에 부딪친 이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신다.



01_쌀 전달 02_쌀 티켓 배부 03_쌀 티켓 배부 04_쌀 전달
05_쌀 티켓 배부 06_홍인길 요셉 형제 방문시 영명축일 축하 07_장학생 모임

선교 이야기 #03_카자흐스탄

STORIES OF THE MISSION
KAZAKHSTAN



세례식 후

KAZAKHSTAN-TALDYKORGAN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송영근 요나 수녀

“빛이 너의 곁에 있는 동안 걸어 가거라” (요한12,35)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와 행복을 피부로 느끼고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민족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 우리 말을 듣고 말하고자 ‘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열심히 오랫동안 배워야 한다’며 더운 날씨에도 방학을 마다하지 않고 오시던 목사 아들을 둔 고려인 홀로라 할머니(76세)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삼일을 넘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소식에 믿기지 않는 아득함에 멍했던 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땅이 넓어 푸르름을 볼 수 있는 곳보다는 한 포기 풀마저도 누렇게 피고 지는 사막이 많은 이곳의 여름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비가 올까 말까 하는 날씨에 낮 온도가 40도를 오르내리는 가운데 그동안 성당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생활하셨던 디오니시아 할머니.. 오랫동안 지병으로 성당은 나오지 못하고 계시다가 삼일전 병자성사를 받고 하늘나라로 떠나 장례식을 하던 그날을 또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으로 좁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아파트 옆 넓은 공터에서 관 뚜껑을 열어 둔 채 출관예절을 하는 순간, 뜨겁게 내리쬐던 햇님이 살짝 자리를 비워주고 비가 올 듯한 날씨마저도 시원한 바람과 구름으로 바뀌면서 이후 장지예절이 끝날 때까지 잔잔한 바람 속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느낄 수 있었던 감사로움과 경이로움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는가! 이제는

그 어느 곳에서도 그분들을 만날 수 없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 안에서 지금도 한 글공부와 미사참례를 할 때면 그분들이 생생하게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평생 열심히했던 그분들의 신앙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딸띠꼬르간은 카자흐스탄에서도 중도시로 조용하지만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1930년대에 고려인과 폴란드인 그리고 독일인들이 러시아로부터 강제로 추방된 채 허허벌판에서 생을 이어 온 곳으로 지금은 독일인의 후손들은 거의 본토로 돌아가고 폴란드인과 고려인의 후손들만이 까작인과 130개가 넘는 소수민족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60%의 무슬림과 30%의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나머지 기타 개신교와 가톨릭이지만 그 옛날 일찌감치 개신교 선교사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도와주며 함께 했기에 지금도 많은 고려인들이 개신교를 다니고 있으며, 소수의 폴란드계와 독일계 사람들만이 성당에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교황님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셨을 때 우리 일행이 행사장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무슬림 교인 한 분이 손가락을 하늘로 향하며 ‘하느님은 하나’라는 표현에 서로 알 수 없는 미소를 교환하며, 지금도 거리를 갈 때면 수도복을 입고 있는 수녀들을 무슬림 여자들이 쓰고 있는 히잡 중의 하나로 알고 반갑게 인사를 할 정도로 무슬림들이 여러 파를 이루고 있



에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중앙아시아에서의 선교는 더욱의 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신자들 집을 대상으로 ‘성요셉’ 이콘을 모시고 순례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수녀원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무심하게 돌돌 말아서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이콘을 액자에 넣어 수녀원에 모시려고 성당에서 축성을 받는 순간 본당 신부님을 통하여 그 이콘을 성당에 모실 수 있게 됨은 역시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에게서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이끄심이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수도회가 중앙 아시아에 진출한지도 벌써 13년.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삶을 이어 온 이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한국과 현지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후원회원들의 도움에 감사드리며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요한8,29) 라는 말씀과 수도 공동체 수녀님들의 관심과 기도에 힘을 받으며 오늘도 “빛이 너의 곁에 있는 동안에 걸어 가거라” (요한12,35)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내일을 희망하며 사랑합니다.



01_ 교우들 배웅 02_현대병원 의료 봉사자들과 함께
03_ 한글교실 교사 연수 중 04_ 누루공소 미사 가는 중에

DAILY LIFE IN

TALDYKORGAN



01_ 청소년들과 '축복받은 성경읽기 창세기' 모임 후 간식 02_ 요셉이온 아바이 방문
 03_ 한글교실 교사 연수 중, 요리교사로 뽑혀서 참여한 교사 요리 지도
 04_ 고려인과 청소년들을 위한 마리아의 집 리모델링 축성식 05_ 카자흐스탄의 자연
 06_ 폴란드 프란치스코 수도원경당에서 미사 후 리투아니아 신부님과 함께
 07_ 영원한도움의 성모님 이콘 성당에 모심 08_ 마리아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09_ 누루공소 미사 참례 후

선교 이야기 #04_베트남

STORIES OF THE MISSION
VIETNAM



공부방에서 종이비행기 날리기

‘더위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오토바이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다니 3,67 참조)

김미라 마리안 수녀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이곳이 낯선 이국땅임을 실감하게 한 것은 ‘혹’ 하고 느껴지는 더운 열기와 거리의 수많은 오토바이였다. 요란한 소음과 서로 부딪힐 듯 아슬아슬하게 끼어드는 모습이 너무나 위험하고 무질서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했다. 그러나 2년 넘게 이 오토바이 문화 속에 살면서 알게 된 것은 오토바이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발자 생계 수단이고,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의 질서와 체계가 있는 아주 편리한 교통수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옆집 꼬마가 골목에 나와 네발자전거를 타며 놀더니 어느 날 아빠가 두발자전거를 잡아주고 밀어주는 모습을 몇 번 보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서 두발자전거로 거침없이 동네를 누비고 있었다. 아마도 곧 큰 자전거, 전기자전거를 거쳐 적정 나이에 이르면 오토바이를 탈 것이다. 따가운 햇살에 땀을 뻘뻘 흘리며 시장에 가고 볼일을 보러 걸어 다니는 우리가 신기한 듯, 안쓰

러운 듯 이웃들 모두 한마디씩 한다. “수녀님도 오토바이 타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신나고 재미있어요.” 그래 이번 기회에 한 번 배워볼까!

베트남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한적한 골목길에서 먼저 전기자전거를 연습했다. 아, 핸들이 정신없이 좌우로 움직인다. 속도 조절도 어려웠다. 베트남 친구가 말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위험해요. 모두 한 방향으로, 직진으로 가야 하는데 지그재그로 가는 누군가로 인해 뒤의 모든 사람이 위험해져요.” 두 바퀴로 안정감 있게, 핸들이 흔들리지 않게, 곧은 자세로, 속도 조절까지 하면서 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주변에 오토바이가 지나가기만 하면 화들짝 놀라 손에 진땀부터 났다. 며칠 연습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내 모습이 갈자(之)로 가고 있는 자전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외 선교에 대한 막연한 꿈이 막상 현실로 다가왔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현지에 왔다



화빈대 한국어반 학생들과 수업시간



한국 문화 체험



화빈대 10주년 기념행사 총장신부님과 함께



베트남의 오토바이 풍경

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베트남만의 독특한 역사와 전쟁, 사회주의 체제, 박해의 아픔 안에서 뿌리 깊이 배어 있는 가톨릭 신앙, 현대 물질문명을 거슬러 성소의 길을 찾는 젊은이들과 만남 안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기대와 설렘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더 많아 하느님께만 의지하고 공동체 수녀님들에게 기대어 야만 살 수 있었다.

언젠가 오토바이를 자유롭게 탈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네발, 세발자전거를 연습하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조금씩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베트남 사람들과 교류하고 친교를 이루며 살고 있다. 아직은 뒤뚱 뒤뚱 흔들리고 혼자도 버겁게 가는 초보자. 10m, 50m 동네 골목을 지나고 조금 더 큰 길로 나아가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럼, 나중에 오토바이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주님께서, 공동체가, 그리고 여기 착한 이웃들이 채워주실

거리는 믿음으로 페달을 밟고 조금씩 속력을 올리며 나아가다.

두렵고 어려울 때 동네 꼬마들이 활기찬 에너지로 즐겁게 뛰어놀며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난다. 저의 삶 또한, 예수님 눈에 환히 보일 것이다. 네발자전거, 세발자전거, 다음 단계로 갈아타며 성장하는 나를 보며 주님께서는 흐뭇해하실 것이다. 성장하며 존재하는 그 자체로 주님을 찬미하고 싶다. 예수님과 성모님을 엔진으로, 영적·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해 주시는 공동체 수녀님들과 후원자들을 앞뒤 두 바퀴로 삼아 기쁨과 감사의 시동을 켜며, 오늘도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며 연습한다. 제 속도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게 베트남의 거대한 오토바이 물결 속에 합류할 수 있는, 그날을 희망하며...

DAILY LIFE IN

VIETNAM



01_한국 문화 체험(탈 만들기) 02_한국 문화 체험(한복 입기)
 03_공부방(성탄행사) 04_공부방 어린이들과 달고나 만들기
 05_본당성소주일 행사 06_한국 유치원 교육 시스템으로 운영할 동심킨더가든 접수
 데스크 앞에서(2023년 12월 2일 완공식) 07_놀이하는 공부방 어린이들 08_속루공
 소에서 장학생들과 함께 09_속루공소 장학금 전달식

우리들의 이야기 - 선교 체험기

STORIES OF OUR EXPERIENCES

우리들의 이야기는 페루 - 필리핀 - 카자흐스탄 - 베트남 선교를
동반해 주시는 분들의 현장 체험과 소감으로 이루어집니다.

01



PERU-CANTO GRANDE

페루의 형제님

나 살로메(애틀랜타 한인 순교자 성당)

벽찬 가슴으로 도착한 페루의 하늘은 암울하다. 안개가 낀 것 같기도 하고, 공사 중인 도시 같기도 하다.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것 같아 낯설진 않았다. 짓다 만 건물, 서로 앞다투어 손님을 잡으려는 택시 아저씨, 삶의 경쟁이 이곳에서도 치열해 보인다.

짐을 풀고 공소를 둘러보니 먼지가 만만치 않았다. 일주일에 세 번 미사가 있는 이 공소의 형제자매들은 우리를 보고 무척 좋아하시고 우리는 그들의 스타가 된 기분이었다. 그들은 우리와 사진 찍기를 원했고, 나는 어렸을 때 서울에서 시골로 놀러 간 서울 사람처럼 그곳에서 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중에 한 형제님은 몸이 아주 불편해 보였지만, 형제님에게 주님의 사랑은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모든 것이었다. 그 형제님의 주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주

님께서는 그 형제님께만 당신을 선명히 보여주셨으며 항상 함께하며 지켜주신다. 차림새가 남루해도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형제님은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며 오직 주님 사랑에 몰입하고 있었다. 너무나 부러웠다. 내가 가진 것과 그 주님 사랑을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릴 때, 나도 그 형제처럼 할 수 있고 그 형제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기도 중에 형제님을 짊어 마음으로 포옹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고백한다. 형제님은 슬프고 고독해 보였지만 그것은 나의 착시였다. 그 형제님은 누구보다도 나에게 선교사의 할 일을 진하게 보여주셨다. 형제님과 함께하시는 주님, 저도 페루의 형제님처럼 주님을 나의 첫 자리에 모시며 살겠습니다.



공소 의자 청소하는 나 살로메



비타민 나눔 준비

PERU-CANTO GRANDE

2023 Peru Mission Essay - 칸토 그란데

최 안드레아(애틀랜타 한인 순교자 성당)

2004년 페루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갔던 곳에 마지막으로 다시금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했던 탓인지 올해는 페루에서의 시간이 유난히 빠르게 지나갔다. 나에게 올해가 공식적으로 정한 봉사자 자격(대학생 이상 - 65세 이하 심신으로 건강한 교우)의 끝줄에 선 해였다.

2004년 처음으로 이곳에 왔을 때는 마치 전쟁 폭격으로 인하여 건물들이 무너져 철근이 삐죽삐죽 나온 듯, 짓다가 만 집들이 대부분으로 모두가 가난했다. 그런데 이제는 공소가 있는 동네까지는 벽돌집의 중산층 구성되어 있고, 그 위로는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어, 빈부 차이가 형성되어 있었다.

올해 단기 선교의 가장 특별한 활동은 저녁 식사 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공소 신자들의 가정 열두 곳을 방문한 일이었다. 이웃들의 가정을 방문함은 우리와 다른 이들의 삶을 목격하고 이해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 선교사 수녀님들께서 준비한 가정방문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선별하신 듯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양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봉사자들을 초대해주신 공소 교우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초대 없었으면 우리들의 방문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초라함과 빈곤함을 감추지 않고 초대하여 환대할 수 있음은 그들의 겸손과 용기를 전제로 하는 것임을 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들과 만나 함께 기도하고 나누

는 것을 하느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실 거라 생각한다.

전구 불빛 하나에 전 가족이 의지하고 있는 가정을 방문했다. 콘크리트로 틀을 갖추었지만, 비바람을 막아주는 창문이 없고, 누울 가구가 전혀 없어 텅 빈 곳 한쪽 바닥에 이부자리를 치워둔 것이 눈에 띄었다.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입구에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서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았다. 올라간 공간은 두 자매의 가족이 각각 따로 살도록 분리되어 있었다. 우리가 앉은 쪽으로 앞전구를 옮겨 다소 빛을 밝힌 후 겨우 기도회와 담화를 나누었다. 땀 뚫린 창문으로 먼 도시의 밝은 야경이 대비되어 마음에 찬바람이 일었다. 소유의 양에 따라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빈곤한 일상은 고통의 삶에 가깝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성당에 나오는 10대 자매 티파니와 유리, 그리고 사촌 솔라이가 밝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기도했다.

복사 알레산드로의 집도 가난의 정도는 비슷했다. 산 동네에서도 계단을 꽤 올라가야 하는 곳에 판잣집이 있었다. 집 앞쪽은 생계를 위해 자그만 가게로 사용하고 있었고, 몸을 옆으로 세워 뒤로 돌아가니 전구 하나가 달린 살림방이 나왔다. 몇 명이 들어서자 딱 찬 조그만 곳이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신앙과 교육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젊은 어머니 자클리나 자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며칠 전 알레산드로가 선교사 수녀님께 봉사자들의 이름을 적어 달라



가정방문



칸토그란데 공소 페인트칠

고 해서 알려주었는데, 우리 방문에 맞추어 준비했다며 손수 만든 작은 선물을 하나씩 주었다. 영어를 조금 할 수 있는 아빠, 재료를 구입했을 엄마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인 알레산드로의 합작으로 만든 작은 선물에 그분들의 따뜻함이 그대로 배어 있어 내내 마음이 찡했다.

봉사 기간 내내 함께 시간을 보냈던 아실은 2005년 리마에서 한참 떨어진 오지 칸가리에서 11살 때 우리를 처음 만났다. 칸가리에 봉사하러 간 세 번째 해에 더 나은 교육을 위하여 리마의 언니네로 갔다는 소식을 접했다. 어린 조카를 돌보며 의무교육을 마치고 대학 시험 준비기간, 대학 졸업 그리고 직장생활 3년째를 맞이한 그녀는 매해 봉사자들이 올 때 일부러 일주일 휴가를 내어 우리와 일정을 함께했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덕분에 우리들의 입이 되어 주어 봉사자들과 함께 보냈다. 선교사 수녀님들의 모범과 돌봄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된 아실이 또 다른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 지역사회에 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대견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한다. '단기 선교를 왜 그리 계속해서 가느냐?' 또는 '비행기 티켓 값을 아껴서 그것을 후원금에 더해 보내주는 것이 금전적으로 더 보탬이 되는 일이 아니냐?'

가난한 이웃들의 고통을 금전적으로 해결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재화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약

자의 편에서 이들을 돕는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며 공감하고 나누고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는 한, 그것조차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열을 가리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동행하며 함께 존재하는 일이 서로의 신앙과 선교의 본질에 가장 가깝다는 생각을 마지막 해에 더욱 친하게 갖는다.

비록 짧은 기간(12박 13일)이지만 신청자들의 준비, 기도, 후원금 모금 모임, 그리고 공동체가 되어 함께하는 현지에서의 경험은 참가자들에게 훨씬 풍성한 열매를 선물해 준다. 선교사 수녀님들도 평신도 단기 선교사들의 방문은 무더위에 치친 시기에 내리는 소낙비 같다고 고마움을 전하신다.

“Come and See! 와서 보세요. 그리고 다시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 이곳에서 목격하고 나눈 것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세요.”

20년 전 해외 선교지를 모색하던 봉사자들을 초대하며 선교사 수녀님들께서 부탁하신 단 하나의 당부였다.

지난 시간을 함께해주신 하느님, 선교사 수녀님들, 단기 선교사들, 후원자들 그리고 페루에서 만난 이웃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PERU-CANTO GRANDE

Cangari, 그 환함의 기억

신 세바스티안(LA 알바인 평화의 모후 성당)



동네 어린이들과 공소에서



안과 검안

Junto a ti Maria, Gracias Madre Mia, Madre, Madre, Madre, Madre...

비오는 어느 토요일 오후,
라구나 비치를 오른쪽에 두고 어딘가를 향해 가는 길
Junto a ti Maria가 들려옵니다.
간가리, 그 주님의 천국을 다녀온 지 이제 한 달이 넘은
즈음, 제 마음은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감
사하며 봉사하시는 주님의 천사들과 천상의 미소를 가
진 그곳 천사들이 그리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천국에
다녀온 기억 속으로 다시 가봅니다.

“꼬끼오 꼭꼭.” 간가리의 조용한 아침을 깨우던 그 사랑
스러운 닭들은 International time zone으로 밤새도록 열
심히 일합니다. 간가리의 첫 아침에 그 부지런한 대장
(?) 닭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간가리 시간으
로 일하자, 우리 응?”

“노아야~~~~” 그 주님의 천국에서 매일 들려오던 우

리네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성모님께서도 어린 예수
님을 밥 챙겨 먹이신다고 이렇게 애타게 매일 부르셨겠
지요. Gracias Madre Mia!

“Junto a ti Maria, Como Un Nino Quiero Estar... Madre,
Madre, Madre, Madre...” 간가리에서 맞은 첫 주일,
공소에서 그곳 주민들과 같이 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천사가 이 아름다운 노래를 합
창합니다. 감동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다 만
났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성모님께 이렇
게 함께 감사의 노래를 봉헌할 수 있는 것은 진정 감동
입니다. 주님과 성모님은 분명 그곳에 계셨습니다. 우리
의 노래를, 다 같이 당신의 현존을 느끼며 부르는 감사
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든 천사
를 한 분씩 바라봅니다. 환함이 있습니다. 천상의 미소
를 봅니다.

“타닥 타닥 타닥...” 천사들의 목욕물을 데우고 있습니



알바인 단기 의료 선교팀



알바인 단기 의료 선교팀

다. 부엌 뒷마당에서 모닥불을 지피고, 큰 양은 들통에
하나 가득 물을 데우고 있습니다. 간가리 현지 천사들을
진료하고 보살피시느라 고생하시는 의사, 약사들과 우
리 어린이 천사들의 목욕물입니다. 잠시 주상 전하의 목
욕물을 데우고 있는 내시가 떠오릅니다. 아... 아닙니다.
이내 천사들의 목욕물을 데우고 있는 성인들이 떠올라
마음이 한결 흐트해집니다. 이 따뜻한 물로 3일 동안 못
한 샤워하세요.

간가리, 그 주님의 천국을 떠올리는 맛과 향기. 수녀님
들이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 차려주신 귀한 손님에게 내
놓은 음식 “꾸이” Delicacy. 치킨 같은 맛이나, 치킨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우아함이 있습니다. 맛있다고 먹으니,
제 아들도 제게 주고, 수녀님도 3개나 더 주십니다. 저
훈자 5개를 먹습니다. 미안함과 흐트함이 섞입니다. 처
음 맛본 천국의 맛입니다.

밤마다 피우던 모기향과 끊임없이 뿌려대던 Repellent도

이곳에서는 친근한 천국의 향기가 됩니다. 팔뚝에 있는
영광의 상처, 모기 물린 데를 매일 새어 봅니다. 25, 26,
27... 숫자가 늘어날수록 굵는 곳도, 시간도 늘어나지만,
마음이 더 좋아지는 이유는 무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간가리가 주님의 천국인 것은 그곳에 살고 계
시고, 또 계셨던 천사들 때문입니다. 그 천사들을 하나
하나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분들의 환한 미소를 기억하
고자 합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간가리의 기억이 희
미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 천국의 미소는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PERU-CANTO GRANDE

페루 선교 이야기

나 베네딕도

해마다 5월이면 본당에 선교팀이 꾸려져 약 2주간 페루를 다녀온다. 선교팀은 20년도 더 됐고, 원년의 멤버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 참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란 생각에 존경심이 든다. 매해 2주씩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부러웠지만, 시간을 내기가 어렵던 나는 체념하고 그들을 바라보기만 하며 20여 년을 흘려보냈다.

그러던 내게 기회가 찾아왔다. 생업으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리하고 잠시 쉬고 있던 때와 선교 기간이 딱 맞아떨어져 망설임 없이 신청하였다. 신청서를 팀장에게 접수하고 비행기 표를 예매할 때 '나도 드디어 페루를 가는구나' 하며 적잖은 감동이 밀려왔다. 선교팀에서도 환영해주시니 더욱 기뻛고, 매주 준비 모임도 충실하게 나갔다. 준비 모임은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의 지향으로 기도하고, 스페인어로 묵주기도 5단을 바치고, 남미 노래와 율동을 배우고, 선교지에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듣고 나누며, 선교 활동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을 보내며 나는 신비로움과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선교지의 형제자매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나? 내가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할 터인데' 하는 등의 기대와 걱정으로 페루에 도착했다.

수녀님 두 분이 우리를 맞아주셨다. 이미 준비 모임에서 뵈었던 분들이라 친근한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수녀님들이 계신 간도 그런데 후안 빠블로 공소에 도착하였다. 이

곳이 우리의 선교지이자 숙소였다. 공소 본당이 내려다보이는 2층 빈 교실에 짐을 풀었다. 첫날은 몰랐지만, 그곳은 수녀님들의 공간이었다. 수녀님들은 식당, 기도방, 화장실 등을 우리에게 내주시며 오히려 우리의 불편을 염려하셨다. 수녀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사와 죄송함이 밀려왔다. 사실 이곳은 금남의 집이기도 했고 수녀님들의 일상과 밀착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녀님들께서도 적잖이 불편하셨을 것이다. 그곳은 많은 사람이 함께 살기에 부족한 공간이었지만 아침 기도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식사 준비도 함께하고 나누며 충분히 즐겁고 유쾌한 공간이 되었다.

우리는 공소 신자들을 위해 청소와 교실 페인트 작업을 하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 교실과 태권도교실을 운영하였다. 일과를 마치면 두 조로 나누어 가정방문을 했는데, 나는 여기서 소중한 것들을 보았다. 가난하여 전기도, 가스도, 상하수도 없는 집들도 있었지만, 모든 가정에는 예수님을 찬미하는 공간이 있었다. 꼬깃꼬깃한 상분과 촛불 하나가 전부인 초라한 테이블일지라도 그 공간이 경건하게 보이는 것은 장식용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작지만, 거룩한 공간에 비집고 앉아 예수님께 기도하며 성령으로 하나가 되곤 하였다.

그곳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꼽아본다면, 마음이 따뜻한 공소의 신자들이다. 우리가 왔다고 환영해주고, 일과 중에 수고한다며 맛있는 점심을 해주려고 애쓰던 자매님들, 가정방문 시 무엇이라도 주려던 사람들, 또 돌아간다고 송별



가정 방문



태권도 교실

식 하며 만찬에 선물까지 준비해 석별의 정을 나누었던 공소 식구들이다. 그들은 헤어짐이 못내 아쉬워 오랫동안 서성이다 돌아갔다. 그들의 친절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인사와는 다른 특별한 정이 있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말 가난하지만,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내어주고 싶은 마음... 그들은 낮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나눔을 기쁘게 실천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런 행동들은 내가 사는 곳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 내 마음 깊은 곳에 '쿵' 하고 다가와 나를 사랑과 감동에 잠기게 했다. 그들은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지만, 나에게 그리스도를 삶으로 알려주는 참다운 선교사들이었다.

페루를 다녀온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간다. '페루'를 떠올리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준 그들이 그리워진다. 그 사랑을 간직하며 나도 그런 사랑을 나누며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와서 보아라!"로 초대해주신 이번 페루 여행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해주었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용기도 갖게 해주었다. 12일간의 짧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돌아왔지만, 남아 있는 그들이 늘 궁금하고 그립다. 든 자리보다 난 자리의 표가 더 난다고 하는데, 우리를 떠나보낸 그들도 우리를 그리워하리라 생각한다.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린다.



미사 후 음악봉사



영원한도움 공소 방문

PERU-CANTO GRANDE

페루 단기 선교를 마치고

임 헬레나(애틀랜타 한인 순교자 성당)

밤새 비가 내린 애틀랜타의 아침은 더 촉촉하고 상쾌하다. 먼지 하나 느껴지지 않는 맑은 하늘을 가득 채운 신선함이, 오늘도 먼지 가득한 하늘 아래 분주한 새벽을 열었을 페루 간도 그란데 후안 빠블로 공소에도 전해지길 기도한다. 건조한 공기, 개발되지 않은 흙바닥, 주변 돌산에서 내려오는 자욱한 돌먼지, 규제 없이 각종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 때문에 쓸고 닦아도 금방 먼지가 수북이 쌓이던 페루. 그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수녀님들과 밝은 공소 이웃들을 기억하며 매일 아침 거저 누리는 내 삶의 호사를 다시금 깨닫는다. 벌써 한 달여가 지난 페루 선교의 기억들이지만 아직은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곳에서 일상을 함께한 체험과 감동적인 순간들이 신앙생활에 게을러지려는 유혹과 이기적이고 교만한 행동과 생각들을 잠재우고, 내 안의 숨어 있는 사랑과 자비, 겸손을 일깨운다.

주님의 이끄심으로 처음 페루 선교를 다녀왔던 2019년 리마 엘살바도르에서의 경험은 다시 찾아온 두 번째 선교의 기회를 주님의 선물로 주저 없이 받아들여지게 해주었다. 풍요로 가득해 부족함을 모르는 삶만이 축복은 아니라는 것을, 가난을 불행이라 여기기보다 예수님의 초라하고 가난한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살아내는 듯 평화로운 그들의 눈빛과 표정에서 예수님의 현존과 자비를 깨달았던 2019년의 페루 선교 기억이 새롭다.

올해 간도 그란데에서의 경험은 4년 전 처음 느꼈던 감동과 내 어리석음을 깨우쳤던 고마운 시간이었다. 가정방문과 현지인들과 더 직접적으로 만남으로써 페루의 이웃들이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하려 얼마나 애쓰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내 믿음을 돌아보며 열정 없이 입으로만 주님과 함께했음을 내 의지와 사랑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소박하고 검소한 공소 제단에서 드리는 미사는 언제나 진지하고 활기차며, 공소 출입구는 미사 내내 지나가는 동물에게까지 열려있었다. 공소 밖에서 소리만 듣는 길거리의 잡상인에게도, 고개만 빠죽이 내밀고 공소 안을 훑음꿈 들여다보는 행인에게도 열려 있고, 공소 앞 공원을 활보하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었다. 모든 이, 모든 소리를 받아들이는 공소는 여수선했지만, 거기서 울려 퍼지는 말씀과 함께 주변의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하려는 현지인들의 너그러움이 느껴져 사랑스러웠다. 미사 끝에 있는 신부님의 축복 예식에, 몸에 성수 한 방울 더 묻히고자 앞다투어 성전 앞에 모여드는 그들의 열정 어린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페루 이웃들은 이방인의 방문에 경계심 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들의 삶을 보여주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접대와 예의로 감사함을 표시했다. 그들은 선교사들이 가져간 작은 선물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으니, 함께한 짧은 기도, 넘치는 사랑과 현대의 메시지로 우리 선교단을 뭉클하게 하고 가슴 가득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안아준 것이다.

불편한 잠자리, 평소의 삶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편안함과 쾌적함을 포기해야 하는 그 낯선 곳에서 무언가가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르치고 채워주는지 생각해 본다.



비야 엘살바도르 수녀원 방문



시장가는길



간식시간



태권도 교실

그리고 깨닫는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에 나를 맡기는 순간, 평소의 삶 안에서 안락한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비워야 채워지는 그분의 자비, 현실과 병행해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분이 허락하시는 삶에 자유로이 순응했을 때 차오르는 기쁨의 향연을 평소에는 느끼지 못한 보잘것없는 것에 머무시는 주님의 겸손함과 작아짐의 위대함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단기 선교에서 선교지의 이웃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작고 초라한 희생에 불과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

신 크나큰 은총의 선물을 다시 돌아온 일상에서 매일 되새기는 것은 나의 소소한 기쁨이다.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내가 주님 보시기에 좀 더 합당한 자력으로 거듭날 수 있길 희망한다. 생각하면 그리워지는, 작고 연약하지만, 누구보다 강한 선교사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수녀님들과 공소 이웃들에게 늘 주님의 평화와 자비가 머물길 기도한다. 그리고 또다시 제게 허락하실 선물의 시간, 천사들과 새로 만날 날을 꿈꾼다.

PERU-CANTO GRANDE

2023 페루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하느님의 계획)

김 로마노(애틀랜타 한인 순교자 성당)

2015년 나에게 기적처럼 시작된 페루 단기 선교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 큰 사건이었기에, 너무나 소중한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연중행사가 되었다.

지금까지 루린 교구의 빈민 도시 비야 엘살바도르와 아야꾸초 대교구의 고산지역 산골 마을 간가리를 다녔었는데, 수녀님들과 형제자매님들에게서 우리 애틀랜타 순교자 성당은 2003년 초시카 교구의 간또 그란데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영원한 도움의 성도 수도회와 20년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들었다. 그래서 이번 간또 그란데 단기 선교는 나에게도 또 다른 설렘이었고 하느님께서 내게 어떤 가르침과 메시지를 주실지 기대하며 1월부터 페루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였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는 해라 그런지 성당에서 성지순례 계획도 여러 번 있고, 많은 사람이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거나 포르투갈 세계청년대회에 참가하는 등 많은 행사가 겹쳐서 인원이 쉽게 모이지 않았다. 이번 단기 선교 코디네이터인 박 은경아네스 수녀님과 통화하면서 걱정을 좀 했는데 수녀님께서는 인원이 적어도 되고 좀 더 모여도 좋으니 다 하느님 뜻에 맡기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3월에 6명이 되었고 뉴저지 마이클 성당에서 한 분 더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총 7명이 모집되었다. 간또 그

란데 수녀원 박정호 임마누엘 수녀님과 서정민 마리아브라함 수녀님은 줌 미팅에서 우리 의견에 귀 기울이며 단기 선교 일정들을 함께 계획했다. 수녀님들이 현지에서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시는 동안 우리는 여기서 기도 모임을 시작으로 후원금 모금 및 후원 물품들을 구입하며 조금씩 준비해 나갔다.

이번 단기 선교는 아침 기도 또는 미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공소 이곳저곳 청소와 대문 교체 자제 구입, 교리실 페인트칠, 태권도와 춤, 율동 만들기 등을 하였다. 피곤한 몸으로 침상에 들어가면, 평생 맺힌 한이나 모든 힘겨움을 표현하듯 밤새도록 온 동네가 떠들썩하고 시끄럽게 춤추고 노래하는 그들만의 문화 속에서 억지로 잠을 청하곤 하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매해 선교지에 가면, 많은 이웃과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가고 함께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어서 좋다. 단 며칠뿐이지만, 그러한 이웃들과 늘 함께하시는 수녀님들의 삶을 체험하며 함께 나누고, 노래하고, 웃고, 울고, 식사하며, 타국에서 오랫동안 힘든 일상을 반복하시는 수녀님들께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어서 좋았다. 행여 단기 선교팀이 불편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 주시는 수녀님들에게 무척 감사했다.



태권도 교실



공소 아이들과 만들기 작업

특히 이번 단기 선교팀 코디네이터로 모든 일정을 총괄하고 끌고 가 주신 박 은경아네스 수녀님과 매일 아침 우리를 위해 손수 드립 커피를 내려주신 서정민 마리아브라함 수녀님, 20년 동안 페루 단기 선교를 이끌어주신 베테랑 선교사 최준태 안드레아, 하느님이 주신 달렌트로 초창기부터 많은 봉사를 하시고 재치 있는 말솜씨로 식사 시간마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 강규상 요셉, 뉴저지에서 레지오 활동과 성서 봉사로 준비된 단기 선교사 나금행 살로메, 단기 선교에서 빠질 수 없는 기타와 함께 신나게 찬양해주신 나창섭 베네딕도, 울뜨레야 활동과 교리교사로 봉사를 하고 계신 나상숙 스킨라스티카, 제대 봉사와 성서 봉사, 해외 단기 선교 단체 BMI에서 활동하고 계신 임혜수 헬레나, 간가리 시골에서 어려서부터 단기 선교팀을 보고 자라 이제는 해마다 자기의 휴가를 단기 선교팀과 함께하며 스페인어를 통역해주는 야실.

지구를 지키는 슈퍼히어로 어벤져스만큼은 아니지만, 하느님께서 이렇게 적은 인원을 단기 선교 드림팀 “단벤져스”로 만들어 주셨다. 함께하며 서로 많을 것을 배우고, 여러 해 같은 성당을 다녀도 서로 잘 알지 못하다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서로를 알아가고, 하느님 사랑 안에 형제자매임을 확인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

이번 단기 선교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은 가정 방문이다. 밤이면 두 팀으로 나눠 몸과 마음이 병들고 가난한

이웃부터 중산층까지 다양한 가정을 방문하여 현지 사람들 속으로 더욱더 가까이 들어가 볼 수 있었다. 공소로 돌아와서는 서로 나눔을 하였는데, 복음 말씀을 매일 몸으로 실천하고 배울 수 있는 선교사들에게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다. 우리는 페루에서 매일 밤 나눔을 하며 서로에게 복음을 알렸고, 애틀랜타 돌아와서도 누구를 만나든 안부 인사의 답변으로 우리들의 경험을 나눴다. 몇 명이 읽을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들의 소중한 경험과 느낌을 이렇게 글로 남기면서 복음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천 년 전에 하신 “와서 보아라”는 말씀은 20년 전 영원한 도움의 수도회 수녀님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다고 한다. 난 이번 단기 선교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손을 통해 만들어 준 작은 선물에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를 읽으며 한 번 더 기억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함께 준비해 주신 수녀님들과 단기 선교팀, 후원자분들과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관하며 늘 함께해 주시는 하느님께 깊은 찬미와 감사를 드린다. 하느님의 계획은 알 수 없지만, 앞으로도 어떠한 큼지막한 사건부터 사소한 사건들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짐을 한 번 더 느끼는 시간이었다.

PERU-CANTO GRANDE

나의 타볼산

나 스콜라스티카(애틀랜타 한인 순교자 성당)

2023년이 밝으며, 내 마음에 올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머무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났다. 그래서 8박 9일의 침묵 피정을 계획했고, 그 외에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두리번거리다 '페루 선교' 공지를 보게 되었다. 65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나이 제한이 마음을 재촉했고, 남편의 의견을 물었을 때 함께 가자는 흔쾌한 동의에 망설임 없이 신청할 수 있었다.

팬데믹 이후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지만, 청년들은 아직 예전처럼 보이지 않아서 이번 선교팀은 중장년층 7명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를 맞아줄 페루 간또 그란데에 계시는 수녀님들과 줌으로 첫 미팅을 했을 때, 나의 소명은 그분들을 만나는 것에 두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스페인어는 물론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어 막막하던 차였기에 수녀님들과의 첫 미팅은 페루로 향하려는 나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었다.

풍족한 일상을 접어두고 페루로 떠나면서 어느 정도 불편함은 예상했지만, 공항에서 내려 간또 그란데의 숙소로 향하면서 흠먼지 가득한 환경은 물론이고 짓다 만 유리창 없는 건물과 산동네의 뻥뻥한 집들은 나의 상상을 초월했다. 우리가 머물게 된 곳은 영원한 도움의 수도회 수녀님들이 선교하며 머무는 간또 그란데의 공소였다. 공소의 신자

들 환경은 어려웠지만은 신심이 깊었고, 가난하지만 뭐든 나누고 싶어 하는 순수한 형제자매들이었다. 이들과 함께 봉헌하는 미사는 마치 성모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던 카나의 혼인 잔치를 떠오르게 하기에 충분한 축제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낮에는 흠먼지 가득한 공소와 교리실을 청소하고 페인트칠을 하느라 분주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수녀님들과 현지인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삶을 피부로 느끼고, 안타까움에 먹먹한 마음을 서로 나누며 하루하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곳 형제자매들의 얼굴은 밝았고, 방문한 우리에게 뭐든 가진 것을 나눠주려는 모습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전해져 나의 마음에도 그 사랑이 차올랐다. 어느새 그들은 나의 형제자매가 되어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건 그곳에 계시는 수녀님들의 모습이었다. 비야 엘살바도르에서 만났던 이글라리아 수녀님과 최 아우구스타 수녀님의 모습은 마치 타볼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뵈는 듯 빛났고, 우리와 11박을 같이 사셨던 박 은경아녜스 수녀님과 서 마리아브라함 수녀님, 그리고 느지막한 나이에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은 신 박 임마누엘 수녀님도 비야 엘살바도르 수녀님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자신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힘차게 따르고 있었다. 나는 수녀님들의 모습 속에서 변모된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들과 지내다 온 시간은 베드로 사도가 초막 셋을



태권도 교실



비타민 나눔 준비



공소 청소



가정 방문



비야 엘살바도르 성당 방문



애틀랜타 단기선교팀

지어 살고 싶어 하던 바로 그곳이었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자주 나의 타볼산에 살고 있는 수녀님들과 가정방문을 함께하던 씨리오, 복사하던 어린 토마스와 휴가의 모든 시간을 우리와 함

께 일하던 아실, 그리고 간또 그란데의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며 그리워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번 선교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만남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고, 하느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끼며,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려 다짐해 본다.

KAZAKHSTAN-TALDYKORGAN

한국 외국어대학교 대학원생의 한국어 사랑

글쓴이 : 알료나 티니코바(Alyona Tinikova)

번역 : 한성숙 살레시아 수녀

저의 이름은 알료나 티니코바(Alyona Tinikova)이고 나이는 21세입니다. 저의 국적은 카자흐스탄이지만 러시아 사람입니다. 제게 있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흥미진진한 모험을 시작하고 새로운 문화, 관점,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국문화에 대한 나의 관심은 처음에 K-pop에서 한국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 안에 잠재해 있는 풍부한 예술적 재능과 표현에 끌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대학교 1학년부터 4년 동안 살레시아 수녀님에게 한국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면대면으로 만나서 공부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발생한 후부터는 Zoom을 통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어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모두 마쳤고, 문법과 더불어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 등 연습하였다. 이 수업을 받기 전에 제가 한국어 공부를 미리 했던 것이 말하기와 쓰기에 더욱 큰 자신감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때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언어장벽이 유창함을 향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언어 학습은 종종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파트너십을 통해 원어민이나 동료 학습자와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유창한 자와 대화하는 것은 나의 말하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동시에 나에게 언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였고 언어 개념에 대한 이해를 향상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한국 역사책을 읽고 있는데, 발음 연습도 하고 새로운 단어와 문법을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거에 대해 알아 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삶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어적 능력을 넘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개인적으로 깊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저는 다양성에 대한 더 큰 이해와 더욱 개방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탐험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깊어졌습니다. 게다가 수녀님들이 제 한국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통역 자원봉사(남양주 현대병원 무료 진료)에 소개해 주어 두 번이나 봉사할 기회를 통해 은분을 알게 되었고 미래에 도움이 될 분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는 한국에 있는 공주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어 한 학기 동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전공은 영어 영문학이지만 제가 그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연습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주 1회 한국 역사에 관한 공부를 수녀님과 온라인으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영어교육을 할 교사 자격이 있으나 한국에서 살며 공부하고 싶어 서울의 한국어대학 대학원에 합격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한글 수업



의료 봉사

My name is Alyona

My name is Alyona and I am 21 years old. Learning a new language is like embarking on an exciting adventure, opening doors to new cultures, perspectives, and opportunities. My fascination with Korean culture initially sparked my interest in the language. From K-pop to Korean dramas, I found myself drawn to the rich artistic expressions that emanated. I have been studying Korean language with Sallesia sunyeonim for 4 years from first grade of university. Firstly, we meet and had lessons face to face, but while quarantine time we had lessons in the zoom. We have learned books from elementary till high level, we were practicing grammar, writing, reading, speaking and listening. Even I have been learning Korean before our lessons helped me a lot to be more confident in speaking and writing. The barriers that once seemed insurmountable had become stepping stones to fluency. Language learning is often a collaborative effort. Connecting with native speakers or fellow learners through language exchange partnerships proved invaluable. Conversing with fluent speakers helped refine my speaking skills, while offering my insights into my own language enhanced my understanding of linguistic concepts. Nowadays we are reading book about Korean history and it is not only helping me in practicing pronunciation and learning new words and grammar, but I also getting familiar with past of Korea, it is interesting

and helpful to understand aspects of life there.

Beyond the linguistic competence, my journey of learning Korean brought about a profound personal transformation. I developed a greater appreciation for diversity and a more open-minded perspective. Exploring a new language expanded my horizons and deepened my empathy towards others from different backgrounds. Additionally, Sallesia sunyeonim let me know me about volunteering where I can use my Korean ability. I joined them twice and I liked time spent there and that I could help people there with my knowledge. Moreover, I met good people there that I could meet later.

Last September I had an opportunity to study as exchange student in Kongju National University. My major was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however as I lived there, I had a good opportunity to practice Korean language as well as English. But even while studying in Korea we had online lesson once a week, that helped me to stay in tune with language learning.

Now I finished my bachelor's degree in teaching English to natives of other languages. And I entered for master's degree in Korea to continue my studies in Korea, because I liked to study and live there. My journey of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has been a testament to the power of determination, curiosity, and cultural immersion. It has not only enabled me to communicate in a new tongue but has also broadened my understanding of the world.

KAZAKHSTAN-TALDYKORGAN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를 다녀와서

글쓴이 : 하빠크 크노루악 알렉산드라(딸띠꼬르간 성당 소속 대학생)

번역 : 조 후 가브리엘(알마티 한인분당 신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리스본에서 개최된 세계 청년대회 축사 중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연히 포르투갈에 오게 된 것이 아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고 싶어 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계 청년대회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며 이 기억은 저의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든 날에도 제 영혼을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번 순례로 인해 저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중요한 경험을 했고,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으며, 제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눌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구에서의 세계 청년대회 일정은 7월 24일 포르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동안 트로파 시에서 멋진 가족과 함께 지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하며 저희를 보살펴 주신 분들과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한분 한분 저희를 도와주셨고, 포르투갈에서 보내는 시간을 보다 더 아늑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를 맞이해 주셨던 호스트 가족은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의 특성, 전통과 생활방식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고 포르투갈 전통 요리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호스트 가족과 함께 보낸 7일 동안에 저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짧은 기간 동안 너무나

친해져 헤어지기가 싫어할 정도였습니다.

한 집에서 5~6명이 함께 지내며 서로 아주 친해졌습니다. 이런 시간으로 인해 서로 신뢰하게 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도울 준비가 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포르투갈 시내를 오랫동안 돌아다니며 기쁨과 피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두 함께 새로운 곳에 대한 소감을 나누며 진심으로 웃기도 하고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는 그저 침묵을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가끔 농담으로 서로를 '포르투갈 자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실로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마주하게 될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지만 같은 공간 안에 함께하면서부터 본모습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던 많은 것들, 개인의 습관 등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것을 겪었고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으며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순례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순간은 파티마시 방문이었습니다. 비록 이 거룩한 곳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저는 마음 속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나타나 세 명의 평범한 자녀인 히아친타, 프란시스코와 루시아에게 예언을 전해주었던 마을 역사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장소 자체가 저 자신을 끌어당기는 느낌



출발 전 알마티 공항에서



하빠크 크노루악 알렉산드라(앞줄 가운데)

을 받았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눈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사람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성모님과의 하나 됨을 느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순례의 세 번째 스텝으로는 리스본에서 개최된 주요 행사로, 백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느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습니다. 《Rise Up》(《일어나라》) 교리 중에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8월 5일부터 6일까지의 주요 행사를 대비한 모두의 영적 준비 기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모여든 사람들과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교리를 마친 후, 저희는 모두 아름다운 성가를 부르며, 마치 하나의 대가족이 되어 모두가 함께하는 미사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되는 것은 하루 종일 힘이 나게 해주었고 다음 주를 준비해 주는 원동력을 심어주었습니다. 순례의 마지막 밤은 저희 모두 들뜬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청년들은 모두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오전 미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 풍족한 환경도 아니며 인파도 너무 많이 몰려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 사랑이 가득 차오르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황님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며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가진 힘은 거대하고 이 힘을 잘 보존하여 더 커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르투갈에서 보낸 2주는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참가했던 모두를 지치게 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매우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이 순례의 주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시몬 신부님과 라디슬라오 신부님, 세르게이 신학생 그리고 이레나 수녀님이 없으셨다면 이번 여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마티 교구 가족과 함께한 여행으로 인해 저는 이 대가족의 일부라고 느끼며 모든 사람이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과 교류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며 제 마음은 주님께 더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힘은 '하나 됨'이었습니다. 이번 2주 동안의 시간이 사람에게 있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모두 함께라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쉽게 견뎌낼 수 있고, 하나 됨의 기쁨을 서로 나누게 되면 수십 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KAZAKHSTAN-TALDYKORGAN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를 다녀와서

글쓴이 : 하빠크 크노루악 알렉산드라(딸띠꼬르간 성당 소속 대학생)

번역 : 조 휘 가브리엘(알마티 한인분당 신자)

Папа Франциск во время приветствия на ВДМ в Лиссабоне сказал “мы здесь потому, что Господь призвал каждого из нас по имени.” Каждый из нас оказался в Португалии не случайно, каждому из нас нужно было увидеть своими глазами как много людей желают восхвалять имя Господа и следовать его путём. Этот всемирный день молодёжи навсегда останется в моём сердце и воспоминания о нем будут греть мою душу в самые холодные и тяжёлые дни. Это паломничество подарило мне бесценный опыт, показало, как важно общаться в живую и дала мне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елиться с окружающими людьми той любовью, что была в моём сердце.

Лично для нашей Епархии ВДМ начался 24 июля, когда мы прилетели в город Порту. Неделю мы жили в прекрасной семье в городе Трофа. За это время мы стали очень близки с теми людьми, которые нас приютили. Каждый старался помочь нам, позаботиться о нас и сделать наше пребывание в Португалии более уютным и комфортным. Наши принимающие семьи рассказывали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страны, некоторых традициях и привычках, они готовили нам национальные Португальские блюда. 7 дней, которые мы провели в семьях, дали мне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полной любви и единства с практически незнакомыми людьми. Мы сильно сблизились и к концу расставаться совсем не хотелось.

В это же время, когда мы жили вместе по

5-6 человек в одном доме сблизило нас очень сильно. Именно это послужило началом крепкой и доверительной дружбы, где каждый готов помочь другому в любой ситуации. Вместе мы разделяли радость и тяжесть дня, после длительных прогулок в городе Порту. Делили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т души смеялись или просто молчали в тяжёлую минуту. Мы даже иногда в шутку называли друг друга “португальскими сёстрами”. Часто в жизни не всегда понятно какой человек на самом деле перед тобой стоит и именно совместный быт и совместное проживание выдают истинную сущность. Это помогает узнать привычки человека и его реакцию на многие вещи, которые до этого тщательно скрывались от посторонних глаз. Так и получилось. Мы узнали друг друга ближе и с еще большим пониманием стали относиться к окружающим и их проблемам.

Вторым значимым событием во время паломничества, стало посещение города Фатимы.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у нас было не так много времени посмотреть это священное место поразило меня до глубины души. Нам рассказали об истории городка. О трех обычных детях Жасинта, Франсишку и Лусия, которым явилась Дева Мария и передала пророчество. Само место словно притягивало к себе, а во время молитвы, на месте явления, у меня на глаза навернулись слезы. Вокруг все было заполнено людьми, которые хотели прикоснуться к чуду



세계청년대회



파티마에서

хотя бы малой частью и почувствовать единение с Божьей Матерью.

Третьей частью нашего паломничества была основная встреча в Лиссабоне, куда съехалось более миллиона молодых людей, готовых отдавать всех себя Богу и молитве к нему. В это время также проводился катехизис “Rise up”, где люди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могли объединиться и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 опытом с другими людьми. Это была наша духовная подготовка перед основными событиями 5-6 августа. Это также стало возможностью ознакомиться с участниками ВДМ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После катехизиса проводилась месса, на которой мы пели прекрасные песни и все вместе молились, как одна большая семья, один большой приход. Та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давало силы на весь день и помогало настроиться на ближайшую неделю. В последнюю ночь паломничества мы спали на поле. Молодёжь со всех стран собралась вместе для одной цели. После была утренняя, завершающая месса с папой Римским Франциском. Несмотря на сложные, походные условия и слишком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каждый мог почувствовать это единение душ и любовь, которая наполняла каждого из нас.

Слова папы дали понять, что сейчас всем нам важно держаться вместе и что сила, которая есть у христианской молодёжи, она огромна, мы должны ее хранить и преумножать.

Те 2 недели которые мы провели в Португалии, пролетели невероятно быстро. 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поездка сильно вымотала каждого из нас в физическом плане, морально я ощущала себя невероятно счастливой и отдохнувшей. За это мне хотелось бы от всей души поблагодарить организаторов этой поездки, в особенности отца Шимона и Ладислава, Сергея Судака и сестру Ирэн, без которых эта поездка бы не состоялась.

За время поездки я вместе с Алматинской епархией ощутила себя частью большой и очень дружной семьи, где каждый важен и нужен. Общение с этими людьми и знакомство с людьми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раскрыло моё сердце для господина и показало, что наша христианская община имеет невероятную силу - силу объединения. Именно за эти две недели я почувствовала, как важна группа в жизни человека. Вместе люди легче переживают любые невзгоды и трудности, а радость в объединении преумножается в десятки раз.

후원자 명단



LIST OF DONORS

Dan hong	권기철신부	김세현	김정자	노경숙	박현미	송호순	오명진	윤성우
hee J.lee	권스테파노	김수연	김정화	노예리	박홍재	신동현	오미숙	윤스텔라
Jan C. Kim	권요나단	김숙자	김정희	노카타리나	박희숙	신두규	오미정	윤영옥
Jane yee	권태영	김숙희	김종석	노현주	방영숙	신숙영	오선우	윤태규
Lydia Beh	김 신	김순례	김종인	루피나	백미숙	신한철	오은미	윤혜련
Sally o'Brien	김 폴	김시몬	김주미	말가리다	백민재	신혜영	오진숙	윤혜령
강경순	김경아	김안나	김준노	모윤선	백승무	심명옥	오창선	윤혜연
강명신	김경애	김안토니오	김지현	문경화	백정연	심재경	오태성	음안드레아
강베티	김경자	김애경	김진숙	문소윤	백현오	심재정	오현미	이강숙
강에린	김글라라	김양희	김진영	문정순	변종찬	안대인	오현배	이경숙
강영옥	김나리	김영복신부	김진호	민영석	서 장	안덕호	오혜숙	이관애
강지옥	김남영	김영섭	김창대	박계영	서미카엘	안상희	오희옥	이기숙
강찬우	김루시아	김영숙	김재성	박기분	서바로	안요셉	우명숙	이냉이
강카타리나	김마리아	김영신	김철애	박동욱	서상범	안재숙	우민자	이덕아
강크리스티나	김말타다	김영자	김철익	박로벨파	서희선	안진이	우원화	이데보라
강현옥	김명순	김영준	김춘화	박루시아	선우루까	안천일	원미자	이동익
고석준신부	김미나	김영춘	김카타리나	박마리아	실시메온	안혜경	위영환	이동익신부
고순희	김미덕	김옥순	김해성	박명숙	설한별	양경철	유근호	이두희
고은주	김미영	김요한	김현주	박명옥	성양경	양권식신부	유바울라	이마리아
고희선	김미원	김용수	김현철	박석옥	성주경	양규진	유보겸	이명자
공덕귀	김미희	김용진	김형진	박소연	손민정	양창우신부	유상순	이무경
공석초	김민정	김용택	김혜숙	박수산나	손주영	엄미경	유소영	이미림
곽인애	김민현	김우택	김혜원	박씨니	손프란츠코	엄영근	유양숙	이미자
구미희	김보경	김운영	김호중	박아가다	손한수	엄윤정	유영희	이미카엘
구바로	김봉자	김유미	나석기	박아네스	송규희	엘리시벳	유요안나	이보리나
구세시리아	김부섭	김유석	나승경	박영은	송미현	여순주	유혜령	이사무엘
구현주	김상연	김윤순	남아미	박영철	송민선	오경택신부	윤동호	이상규
국신옥	김석준	김윤옥	남양순	박용일신부	송선주	오규훈	윤명철	이상은
권 일	김선영	김자넷	남일현	박재현	송아네스	오로사리아	윤석우	이선국
권경희	김세시리아	김정옥	남현숙	박중근	송영자	오마리아	윤성업	이섬주

후원자 명단



LIST OF DONORS

이성우	이재숙	임마리아	전준경	정재욱	주경자	최양수	한경옥	황수연
이성춘	이재인	임벌비나	전해숙	정자넷	진바로	최윤자	한덕하	황은성
이성훈	이정석	임상무	전해숙	정준경	진서희	최윤주	한미영	황이선
이수정	이정효	임승옥	정경숙	정춘자	진영서	최윤지	한인숙	황혜전
이숙기	이종규	임연순	정미연	정태아	차문영	최은경	한정희	다수의
이숙자	이종용	임윤자	정민선	정현숙	차이오싱	최의순	함성미	익명 후원자
이숙희	이준희	임태근	정민자	정현준	차영우	최정녀	허경재	
이순희	이창기	임프란츠카	정상희	조건현	차윤규	최제원	허성일	
이승연	이창현	임혜경	정선희	조덕현	차윤지	최준태	허정옥	
이시원	이철세	장명심	정소희	조루시아	채윤정	최현주	형영란	
이영래	이춘자	장아기다	정수완	조삼현	최 란	최효숙	홍경희	
이영혜	이프리실라	장영윤	정수원	조성철	최경자	추춘득	홍금자	
이옥승	이해숙	장영자	정수진	조엘렌	최금란	탁로사	홍보근	
이요안나	이향희	장윤숙	정순자	조영광	최로사	탁안젤라	홍부용	
이용결	이현숙	장입분	정승훈	조영섭	최미숙	태은경	홍영옥	
이용명	이혜원	장정수	정연숙	조영이	최미카엘	편프란츠코	홍은숙	
이원영	이호연	장현진	정영진	조우직	최봉제	표준희	홍인길	
이윤자	이희병	전경숙	정우영	조인순	최성환	하기타리나	홍인식신부	
이은영	임건호	전광석	정우진	조향순	최세나	하애란	홍진숙	
이은진	임루시아	전애나	정윤숙	조현용신부	최숙자	한경숙	홍진일	
(주)대방수산	서울 반포성당	천사약국	부산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사)부산행정동우회			
(주)한양정밀	안경나라	(주)신기메디텍	부산 안락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재)협성문화재단			
ABC동호회	주님의평화	(주)우리카드	서울 청담동성당	빈첸시오회	교황청전교기구한국지부			
나보파스장학회	SAT PRO학원	부산 미바회	의정부 백석동성당	빈첸시오회				
이들란타신자들	수도회르잔치한	조이주사목	춘천 임당동성당	빈첸시오회				

한결같이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본회 수녀들이 선교하는 페루(칸가리 공소, 비야 엘 살바도르, 칸도 그란데), 필리핀(나보파스), 카자흐스탄 그리고 베트남의 어려운 이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문의



INQUIRY

+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미주지부

Catholic Bible Life Movement U.S.A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U. S. A.
 (Sr. Emma Jeon / 전 엠마 수녀)
 Tel | 1-714-521-1345
 H.P | 1-714-383-3585
 e-mail | emma2171@hanmail.net

+ 한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15라길 2-18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우 | 02706
 Tel | 02-2171-1551

후원금 송금



REMITTANCE

신한은행 140-006-010754
 (재)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국민은행 036137-04-001127
 (재)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하나은행 121-910004-74004
 (재)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미국에서는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미주지부로 문의하시고,
 한국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할 경우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SUPPORT GUIDE >>>

CONTACT KAZAKHSTAN

-  Katolic Church Biazhan sal 145
Taldykorgan 140008, KAZAKHSTAN
(Sr.Salesia Han / 한 살레시아 수녀)
-  7-7282-245-002
-  7-702-196-1770(한 살레시아 수녀)
7-775-445-8153(송 요나 수녀)
7-775-960-2731(오 은영데레사 수녀)
-  hanss@catholic.ac.kr(한 살레시아 수녀)
jona355@hanmail.net(송 요나 수녀)
eyt633@hanmail.net(오 은영데레사 수녀)

CONTACT PERU-VILLA EL SALVADOR, LIMA

-  Las Hermanas de Nuestra Señora del
Perpetuo Socorro
Apartado 0066, Lima 35, PERÚ
(Hna.Clarisa Lee / 이 글라리사 수녀)
-  51-1-292-2327
-  51-937-411-504(이 글라리사 수녀)
-  villaperu@hotmail.com
cafe.daum.net/solph-peru

CONTACT PERU-CANGARI, HUANTA-AYACUCHO

-  Las Hermanas de Nuestra Señora del
Perpetuo Socorro
Apartado 10, Huanta Ayacucho, PERÚ
(Hna.Speranza Shin / 신 스페란자 수녀)
-  51-999-940-351(신 스페란자 수녀)
51-959-761-357(정 뽀리나 수녀)
-  cangariperu@hotmail.com
cafe.daum.net/solph-peru





CONTACT VIETNAM

-  174/35 Tam Châu, Tam Bình, TP Thủ Đức,
TPHCM 71300
Hồ Chí Minh, Vietnam
(Sr.Mari Ann, SOLPH / 김 마리앤 수녀)
-  84-076-9074-487(김 마리앤 수녀)
84-076-8780-247(김 시릴로 수녀)
-  rose-mira@hanmail.net(김 마리앤 수녀)
skgod299@hanmail.net(김 시릴로 수녀)





CONTACT VIETNAM-DA NANG

-  Số 20 Trần Hữu Độ Phường khuê Mỹ, Quận Ngũ
Hành Sơn, TP Đà Nẵng (DONGSIMKINDERGARTEN
NGU HANH SON DA NANG), Vietnam
(Sr.Maririta Kim, SOLPH / 김 마리릿다 수녀)
-  84-903-786-101(김 마리릿다 수녀)
84-076-9074-485(백 글라라 수녀)
-  kimheeja1214@gmail.com(김 마리릿다 수녀)
cl583@hanmail.net(백 글라라 수녀)

CONTACT PERU-CANTO GRANDE, LIMA

-  페루선교센터
JR.CARLOS DE LOS HEROS 738 PUEBLO
LIBRE 15084 LIMA, PERÚ
(Hna.Immanuel. Park / 박 임마누엘 수녀)
-  51-1-359-5855
-  51-986-501-518(박 임마누엘 수녀)
51-932-449-968(박 은경아녜스 수녀)
51-959-761-357(서 마리아브라함 수녀)
-  manuel592@hanmail.net(박 임마누엘 수녀)
sragnes001@hanmail.net(박 은경아녜스 수녀)
srmab@daum.net(서 마리아브라함 수녀)

CONTACT PHILIPPINES-NAVOTAS

-  San Lorenzo Ruiz Parish Church
(Tahanan ni Maria)
Phase 1-C Kaunlaran Village,
Navotas 1409 Metro Manila, Philippines
(Sr.Gabriela, SOLPH / 김 가브리엘라 수녀)
-  63-2-8652-7714
-  63-0969-174-6992(김 가브리엘라 수녀)
63-0939-332-4146(정 유딯 수녀)
63-928-421-0722(최 요세핀 수녀)
-  gabi59@hanmail.net(김 가브리엘라 수녀)
ju395@hanmail.net(정 유딯 수녀)
josephine.657@daum.net(최 요세핀 수녀)
cafe.daum.net/solphphilppin